



## MISSION

이번 주는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파송 받은 '한국 국제 기아대책'본부에서 회의 차 한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현지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티그베니 머마야 집시 교회 - 구루야 형제의 딸 라헬라가 아동 사역을 돕다가 올봄에 우루사리 집시 청년을 만나 남자 집에서 살고 있고, 이 충격으로 구루야 형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주위에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일찍 시집을 가고, 라헬라는 17세가 되도록 찾는 남자가 없으니 불안해서인지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자를 그냥 따라 간 겁니다. 라헬라는 기술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앞으로 유아교육을 공부하여 교회 아동 사역자로 일했으면 하고 기대하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픡니다. 교회적으로 20명 정도 새 신자도 나오고 자립을 한 교회입니다.

티그베니 장애 고아 사역 - 트라이안 형제가 미넬라자매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티그베니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성경공부와 필요품을 돕고, 미넬라는 고아원에서 자매들과 예배를 드리고 성경 암송도 가르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에쉬티 마을 교회 - 오이에쉬티 마을 교회는 크리스티 형제 부부가 오후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나르체사는 아들을 낳았고, 델리는 딸을 낳아 교회를 나오고, 15세 다비드는 키가 훌쩍 커서 190cm 라 한참을 쳐다보아야 하고, 교회에 나오던 12세 이상 여자아이들은 하나둘씩 시집을 다 가 버리고 12세 이상 남자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해외로 돈벌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 그 자녀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간병인 일을 하러 갔던 니나 자매가 몇 개월 일한 후 집으로 돌아와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로툰다교회 - 최근 주일학교 나오던 아동 중에 13세~15세 사이 여자아이들 날루카, 가비등 6명이 다른 집시 마을로 모두 시집을 갔습니다. 루다리는 조혼 관습으로 여아들이 16세가 넘으면 나이가 많다고 신랑 집에서 꺼려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이 16세 전에 시집을 보내고, 남자 집에서 살다가 법적 성년이 되면 결혼식을 합니다. 루다리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정 올림

기도 제목

1. 청소년 제자 양육에 진보가 있고 각 마을에 아동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2. 집시 부모들이 자녀의 조혼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 SHARING

성경 정독을 하면서 받은 감동을 나눕니다.

가나안 정탐 군 12명, 각 지파의 대표 자격으로 보내진 그들은 같은 땅에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이루고 계심에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2명)과 그렇지 않은 자들(10명)으로 나뉜다 (민 13장).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이들은 진영을 통솔하며 바란 광야까지 오는 길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생생히 경험한 자들이다. 그러나 지도자급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되어 흔들리고 있으니 백성이 흔들리는 것은 이상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 14:2)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며 여호와 만을 의지하며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렘을 돌로 치려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민 14:10).

모세의 중재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싹 쓸어 버려졌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1장에서 만나가 신물 난다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소리를 내다가 메뚜기 고기를 내려주신 여호와 앞에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곧바로 또 죄를 범한다.

얼마나 내 모습과 비슷하던가 쉽지만은 않았던 지금까지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반, 다시 찾아 주신 주님 그리고 행하시는 기막힌 일들... 저들의 40년 광야의 여정을 나 자신 속에서 생생히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감사의 미소를 짓는다. 모세의 중재처럼 방황하는 딸을 보며 쓰린 가슴을 붙잡고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오늘처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긍정의 자리에, 모세처럼 중재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부정의 자리에, 백성처럼 입으로 떠들다가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대가를 치르는(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 민 14장 28절) 자리에 설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어야 할 본향을 향한 길, 믿음으로 주위의 많은 사랑하는 자들을 중보하며 주님 손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한상순 집사

## PRAYER

1. 성령님의 역사로 성장과 성숙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2.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고 소중함을 아는 일꾼이 선출 되도록.
3. 영육으로 연약한 성도, 삶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에게 강건함과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 금주의 암송말씀

로마서 12: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